

제 목	그람양성균 감염증에 대한 Teicoplanin과 Vancomycin의 임상 효과 및 그 안전성에 관한 비교 연구
연구 자	최강원, 우준희, 오명돈
소 속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및 순천향 의대 내과학교실
내 용	<p>Teicoplanin은 actinoplanes teicomyceticus의 발효산물로서 vancomycin과 같은 glycopeptide 계열의 항균제이며, 그 작용기전은 세포벽 합성과정중 peptidoglycan의 중합을 억제하는 것으로 vancomycin과 유사하나 vancomycin과 달리 근육에 주사할 수 있으며 "red man's syndrome"이 생기지 않고 vancomycin보다 반감기가 길다.</p> <p>그람양성균 감염증에 대한 teicoplanin의 효능 및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람양성균에 의한 감염증 또는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에 의한 혼합감염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었던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teicoplanin과 vancomycin을 투여하였다. 투약 환자중 임상적인 반응을 평가할 수 있는 환자의 수는 vancomycin의 경우 투약환자 22명중 21명, teicoplanin의 경우 24명중 19명이였다. Vancomycin군중 임상적 반응의 평가에서 제외된 1명은 수술후 흉막강에 MRSA 에 의한 농양으로 투약 29일째에 뇌출혈로 사망하였던 예로, 추적 배양검사에서는 MRSA가 제거 되었다. Teicoplanin군에서는 항균제 투여중 간경변증에 의한 식도출혈 1예, 수술후 위장관 출혈 1예, 뇌 색전증 1예가 사망하였고, 1예는 Teicoplanin에 의한 심한 피부발진으로, 다른 1예는 봉와직염의 임상진단이 조직검사결과 악성종양의 근육침범으로 밝혀져 투약을 중단하였다.</p> <p>치료성적은 vancomycin군에서는 임상적으로 치료에 실패한 예가 없었으나, teicoplanin군에서는 penile cancer의 연조직 감염 1예와 MRSA에 의한 농흉 1예, 그리고 만성골수염 1예에서 치료에 실패하였다. 미생물학적 반응은 평가 가능한 vancomycin군 20예 모두에서 감염균이 제거되었으나, teicoplanin군은 14예중 2예에서 실패하였다. 실패한 3예는 모두 MRSA에 의한 감염증으로 2예가 만성 골수염, 1예는 농흉이였다. 부작용은 vancomycin군에서 신부전 2예, teicoplanin군에서는 피부발진 1예와 혈중 transaminase치의 상승 1예가 있었다. 이중 피부발진이 있었던 예는 teicoplanin을 400 mg 첫 dose를 정맥주사 Stevens-Johnson syndrome양의 발진이 생겼으며, 동시에 투여하던 다른 약제가 없어 teicoplanin에 의한 부작용으로 판정하였다.</p>